

핀코, 전주에 첫 한국 사무소 열어

글로벌 채권 전문 자산운용사 한국 사무소 첫 개소... 국민연금 파트너십 강화

국민연금의 해외채권 및 해외부동산 투자 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채권 전문 자산운용사 핀코(PIMCO)가 전주에 연락사무소를 열었다. 핀코가 한국에 사무소를 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일 전북 전주시 만성동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알렉 커스만 핀코 아시아 태평양 대표 박정 핀코 한국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핀코는 1971년에 설립된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2024년 말 기준 약 2조 달러(약 29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전 세계 24개 사무소에서 3,000명이 넘는 전문가가 활동하며, 특히 공모 및 사모채권 투자에 강점을



국민연금의 해외채권 및 해외부동산 투자 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채권 전문 자산운용사 핀코(PIMCO)가 전주에 연락사무소를 열었다. 핀코가 한국에 사무소를 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진 회사다. 핀코는 2008년부터 국민 연금의 해외 투자 자산을 위탁 운용해

왔다.

이번 전주 연락사무소 개소를 통해 핀코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한국 투자자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동향과 투자 전략에 대한 전문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태현 이사장은 "세계적인 채권운용사 핀코가 첫 한국 사무소를 전주에 연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국민연금과 핀코의 20년 가까운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이자 앞으로 더욱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질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과 협력을 위해 전주에 사무소를 둔 글로벌 금융사는 핀코를 포함해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 BNY멜론은행, 프랭클린템플턴, 블랙스톤 등 총 7개 기관에 이른다.

/오상근 기자



농협중앙회와 한국농수산대학교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미래농업 선도 청년농업인 육성’

농협-한농대, 상호 협력 위해 ‘맞선’

농협중앙회와 한국농수산대학교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농협중앙회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지난 2일 전주시에서 위치한 한국농수산대학교 대학본관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관심사인 청년농업인 육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고,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 역량개발 및 졸업생 영농 정착 지원 △효율적 청년농업인 교육을 위한 양 기관 교육인프라

공동이용 △농기계정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농업농촌 연구사업, 인적교류, 탄소중립 관련 프로그램 협력을 약속하였다.

농협은 한농대 교육인프라 개선을 위해 1억원 상당의 실습용 농기계를 기증, 도서관에 학생들이 쓸 수 있는 휴게공간 설치와 함께 로비에 농협의 쌀 소비촉진 캠페인 등 공익사업과 주요사업, 역사를 소개하는 농협홍보관을 설치, 이를 통해 한농대 학생들에게 농협을 더욱 깊이 알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중기부,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3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lobal Business Center, 이하 GBC)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GBC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중기부가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현재 전 세계 14개국 21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GBC에 입주하는 기업은 현지 사무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사업화 서비스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기업들에게는 독립실과 공용 회의실이 제공되며 비입주기업도 수시로 공유오피스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의 원활한 현지 정착을 위해 법률·회계·노무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 GBC 소재국별 시장 특성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등)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올해는 보호무역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대내외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GBC 운영 방향 및 지원체계를 크게 개선하였다.

먼저, 증가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수요에 맞춰 GBC 소재국별로 현지 전문가 및 선배 진출기업 등이 참여하는 해외멘토단을 구성하여, 세미나 및 후속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오상근 기자

농진청-농협경제지주, 염소 산업 성장 위해 손잡다

고부가가치 축종 ‘염소’의 체계적 육성과 산업화 기반 마련

농촌진흥청과 농협경제지주가 염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힘을 모은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인병우)와 지난 1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염소 산업 성장 기반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약은 체계적인 염소 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염소 산업 관련 정보 교류 및 맞춤형 교육·



전문 상담(컨설팅) 지원 △우량 종축 분양 △염소 전용 축사 표준설계도 개발 및 현장 보급 △기술 실용화 및 보급 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염소 인공수정 기술, 품종 개량, 전용 사료 개발 등 판

련 기술의 현장 적용과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23년 기준 염소 사육두수는 42만 3,430두로, 2010년(약 24만 마리) 대비 약 76% 증가했다. 생산액은 2010년 502억 원에서 2023년 1,877억 원으로 늘어 전체 축산업 생산액의 0.78%를 차지하고 있다.

염소 고가(신양육) 수입량은 2010년 788.7톤에서 2023년 6,179톤, 2024년에는 8,348톤으로 매년 큰 폭 증가하고 있다.

지지방·고단백 식품인 염소 고기를 찾는 소비자가 많은 데다 오는 2027년 시행 예정인 ‘개 식용 종식법’ 여파로 염소 고기가 떠오르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오상근 기자

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 참외 스마트팜 연구... 중앙-지방 협력 속도 낸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은 지난 2일 경북 성주 참외과채류연구소를 찾아 참외 생산 동향을 파악하고, 스마트 팜 협업 연구 추진 상황을 살폈다.

참외는 포복성 작물로 잎과 열매가 바닥에 붙어 자란다. 가지 정리, 잎 따기, 수확 등 대부분 농작업을 장시간 쪼그려 앉아서 하는 농업인은 근골격계 부담을 호소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나라 참외 재배 면적의 98%를 차지하는 경북에서는 참외 재배 면적 감소를 우려해 지난해부터 농촌진흥청 지역특화사업



으로 참외 하향식 수직 재배 스마트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참외 하향식 수직 재배법은 생산성이 높고, 서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편의성을 개선해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반면, 가장 중요한 시설 안전성과 난방에너지 등 재배시스템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폭설과 태풍에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고, 참외 식물체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시설 모형(모델)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냉난방 에너지 절감 시스템과 뿌리 부분 온도 저감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내년부터 경북 지역과 하향식 수직 재배시스템 확립을 위한 협업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농진청, 올해 규제혁신 과제 점검... 방향 모색

농촌진흥청이 올해 추진한 규제혁신 과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주재하고 소속 기관장과 실·국장들이 참석해 지난 2일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추진 과제 점검 회의’에서는 신산업 육성, 농산업체 지원, 농업인 부담 완화, 국민 불편 해소 등이 포함된 규제 개선 과제 34건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생명자원법, 비료 공정규격 설정,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 법령 및

고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처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추진할 계획이다.

확정된 주요 규제혁신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용광로 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로슬래그’는 상토의 물리·화학적 개선 효과가 있으나, 비료(상토)의 제조 원료로는 사용이 불가해 비료 공정규격 설정을 개정 ‘고로슬래그’를 사용 가능 원료에 추가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중기청, 창업성장-첫걸음R·D 신규과제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5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R&D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5월 7일까지 모집하며, 신청기간은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라고 밝혔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R&D)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업력 7년 이하(신산업창업 분

야 10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전북 기업 15개사를 모집할 예정이다.

그간 사업을 통해 과제당 1년간 1억 2천만원의 소규모 지원을 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창업기업들의 성과창출을 강화하고 기술창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과제당 최대 1년 6개월간 2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